

## 碩士學位論文

# 黃帝內經이 東垣의 醫學思想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慶熙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教室

南茂吉·丁彰炫

## A Study on the Effect of Naegyeong on Lee Dong-yuan's Medical Thought

Nam Moo-kill·Jeong Chang-hyun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f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effect of Naegyeong on Lee Dong-yuan's medical thought. Lee is famous physician who studied the theory of spleen and stomach. His general idea of spleen and stomach could be thought as an result of study on Naegyeong. He distinguished between Eum disease and Yang disease and classified into internal injury and external affection. In the contents of Naegyeong, he took note of the four seasons' changes that are continued by the ascending and descending between heaven and earth, also he took note of the fact that movement of human body's organs is represent of ascending and descending. Human body is a site that a singular ascending and descending of Gi of the stomach.

key words : Naegyeong, Lee Dong-yuan, Gi.

### I. 緒論

李杲의 字는 明之이고 晚號는 東垣老人이다. 金 大定 20년(1180년)에 태어나서 蒙古 憲宗元年(1251년)에 죽었다. 이때는 金이 망한 지 이미 17년이 되므로 元史에도 또한 傳이 있다. 동원이 20세 되던 해에 어머니 왕씨가 실력없는 의사에 의해 병사했는데 무슨 병인지 조차도 몰랐다. 이에 동원은 스스로가 의학의 이치를 모른다는 것에

상심하여 의학에 뜻을 두었다. 易水의 潔古老人 張元素가 의술로 천하에 이름이 있음을 듣고 금과 비단을 드리고 의학을 배워 몇년만에 그의 법을 다 터득하였다.<sup>1)</sup>

동원이 살았던 당시에는 의사의 지위가 그다지 높지 않았고 자신의 생활도 부유하여 의학을 직업으로 삼을 필요가 없었으며, 항상 고상하고 방만한 태도를 견지하여 비록 사대부 등 권위있는 자가 치료를 받으려 해도 원하는 대로 응하지 않았으나, 병란 이후로 동평지방 등으로 옮겨 살면서 백성들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과

\* 交信著者 : 丁彰炫,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2) 961-0337, jeongch@khu.ac.kr.

1) 홍원식·윤창열 편저, 중국의학사, 일지사, 2001, p. 319.

거의 방만한 성격을 버리고 백성들의 치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다.<sup>2)</sup> 元代 초의 중국은 난폭한 통치와 정치의 부패로 국민생활이 몹시 어려웠고 전쟁이 심하여 백성들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며 배고픔과 기아로 비위의 질병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비위의 영양흡수능력을 잃어 체력이 약해져 모든 병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동원은 補中益氣湯과 升陽益胃湯 등을 창방하였고, 임상에서 補土를 중시하였으므로 후인들이 補土派라 칭했다. 그의 저서인 『脾胃論』은 비위를 중시하는 補土學說의 기초를 수립하여 의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內外傷辨惑論』, 『脾胃論』, 『蘭室秘藏』, 『用藥法象』 등이 있다.<sup>3)</sup>

『내외상변혹론』의 상권의 주요 내용은 내상병과 외감병의 감별 및 그 병리변화에 대하여 변증한 것이며, 중권은 음식노곤상 중에 喜怒憂恐과 勞倦過度로 元氣가 허손됨을 논하였고, 하권은 내상음식을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다. 『비위론』은 동원의 학설 중에서 많은 이론이 집적된 책으로 동원 의학사상의 바탕이 되고 있는데 『내외상변혹론』은 중기부족을 좇아 이론을 전개한 반면에 『비위론』에서는 “人以胃氣爲本”을 강조하여 胃氣가 왕성하면 비록 사기가 있어도 해를 주지 못하나 만일 胃氣가 일단 상하면 五亂이 함께 일어나니 비위를 보하고 양기를 끌어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권은 『내경』중의 이론을 인용하여 비위론의 요지, 의도, 주요이론 및 처방방약을 상세히 논술하여 『비위론』의 기초가 되고 있다. 중권은 비위병의 증치를 논술하였으며, 하권은 비위병과 천지음양, 승강부침의 관계를 거듭 논하였고 아울러 임상경험을 결합시켜 각종 치료법을 논술하고 있다. 『난실비장』은 동원의 이론이 집대성되어 있는 책으로 내과, 외과, 오관과, 부인과, 소아과 등 각과를 포함하고 있다. 『용약법상』은 한 권으로 된 책이며 『본초강목』서례에 의하면 『용약법상』은 元의 李東垣의 저서로 그의

스승 張潔古의 『珍珠囊』을 기초로 하여 용약법례를 증가한 것이다.<sup>4)</sup>

이 저작들 외에 『脈訣指掌病式圖說』, 『活法機要』, 『醫學發明』, 『東垣試效方』 등이 있으며 유실된 저작으로 『傷寒會要』, 『傷寒治法舉要』, 『萬愈方』 등이 있다.<sup>5)</sup>

동원에 관해 연구한 기존의 논문을 살펴보면 최<sup>6)</sup>의 논문은 동원의 생애와 의학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의의가 있다. 송<sup>7)</sup>의 논문은 동원을 포함한 사대가의 의학특징을 연구하였다. 사대가 의학의 이론적 차이를 밝힌 것과 특히 火에 대한 견해 차이를 밝힌 것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內外傷辨에 대해 의사학적으로 고찰한 진<sup>8)</sup>의 논문과 升降에 있어서 脾胃의 역할을 연구한 정<sup>9)</sup>의 논문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동원의 저서에서 『내경』문장을 인용한 부분을 찾아 『내경』이 동원의 의학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동원은 스스로도 ‘內經之旨 皎如日星’<sup>10)</sup>이라 하여 『내경』의 사상을 존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 인용된 동원의 의학사상을 통하여 후대에 미친 영향과 임상에서 『내경』과 동원의 의학사상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 II. 本 論

### 1. 內經과 脾胃學說

- 4) 정면·홍원식, 금원사대가의학이 조선조의학 형성에 미친 영향, 대한원전의학학회지, Vol.9, p. 448.
- 5) 맹용재 외 옮김, 각가학설, 대성의학사, 2001, p. 152.
- 6) 최삼섭, 李東垣의 生涯와 醫學思想, 경희한의대 논문집, Vol.4, 1981.
- 7) 송철호, 金元四大家에 關한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 1986
- 8) 진주표, 李東垣 內外傷辨의 醫學史的 考察, 경희대학교 석사, 2002.
- 9) 정호진, 脾胃와 命門을 中心으로 한 升降의 原動力에 關한 考察, 경희대학교 석사, 2001.
- 10)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5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동원 비위론역석, 대성문화사, 1999, p. 22.

2) 송철호, 금원사대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 1986, p. 13.

3) 홍원식·윤창열 편저, 중국의학사, 일지사, 2001, p. 319.

(1) 脾胃는 元氣의 근본이다.

동원은 ‘土爲萬物之母’라는 관점에서 ‘胃納脾運’과 ‘脾升胃降’하는 기능이 우리 몸을 자양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바탕이 된다고 보았다. 『비위론』에서 『영추·옥관』의 “사람이 기를 받는 바는 곡식이며 곡식이 주입되는 곳은 위이다. 위는 수곡과 기혈의 바다이다. (人之受氣者, 穀也. 穀之所注者, 胃也. 胃者, 水穀氣血之海也.)”<sup>11)</sup>를 인용하여 ‘사람은 위기가 근본(人以胃氣爲本)<sup>12)</sup>임을 밝히고 있다. 또 『소문·경맥별론』의 “食氣入胃”, “飲入於胃”<sup>13)</sup>를 인용하여 음식물이 胃중에 들어왔을 때 비의 운화 단계를 거쳐 온몸에 퍼지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는 수곡의 중요성과 이를 받아들여 전신으로 운행시키는 비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脾胃論·脾胃勝衰論』에서 “무릇 飲食入胃하면 陽氣가 상행하여 진액과 기가 심에 들어가고 폐를 통하여 피모를 충실하게 하며 百脈에 퍼진다.”<sup>14)</sup>라고 한 것이 비가 위로부터 수곡의 정기를 받아 생명활동을 유지함을 밝힌 것이다. 수곡의 精氣가 오장육부에 공급되고 四肢百脈으로 퍼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胃氣가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胃氣가 허한 상태에서 ‘飲食自培’하거나 實邪를 끼게 된다면 胃中の 元氣가 손상을 받게 된다. 그러면 脾의 운화과정에도 문제가 생겨 ‘散精於肝’, ‘上歸於肺’할 수 없게 된다.

동원은 元氣와 脾胃의 관계를 여러 번 언급하였는데 元氣의 허실은 비위의 성쇠에서 결정된다. 『脾胃論·脾胃虛則九竅不通論』에서는 “진기 또는 원기라고 하는 것은 먼저 몸에서 생기는 정기로 위기가 아니면 자양할 수 없다. 위기는 곡기,

영기, 운기, 생기, 청기, 위기, 양기이다. (眞氣, 又名元氣, 乃先身生之精氣也, 非胃氣不能滋之. 胃氣者, 穀氣也, 榮氣也, 運氣也, 生氣也, 清氣也, 衛氣也, 陽氣也.)”<sup>15)</sup>라고 하였고 『내외상변혹론·변음증양중』에서는 “무릇 원기, 곡기, 영기, 청기, 위기, 생발제양상승지기 이 여섯 가지는 모두 음식이 胃로 들어가 곡기가 상행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위기의 다른 이름일 뿐 실제로는 하나이다. (夫元氣, 穀氣, 榮氣, 清氣, 衛氣, 生發諸陽上升之氣, 此六者, 皆飲食入胃, 穀氣上行, 胃氣之異名, 其實一也.)”<sup>16)</sup>라고 하였다. 또 사람은 水穀之氣를 받아서 생을 영위하므로 소위 清氣, 榮氣, 運氣, 衛氣, 春升之氣는 모두 胃氣의 별칭이라 하여<sup>17)</sup> 胃氣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모두 元氣가 수곡의 정기에 의해 생성된 胃氣에 의해서 자양됨을 밝힌 것이다. 동원은 『내경』의 여러 편을 참고할 때 원기의 충족은 비위의 기로부터 생기므로 비위의 기가 손상 받지 않은 후에 원기가 자양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sup>18)</sup>

동원은 『脾胃論·脾胃虛實傳變論』에서 병은 비위로부터 생기고 양생이란 元氣를 충실하게 하는 것임을 내경 문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생기통천론」에 이르기를 창천의 기가 청정하면 사람의 의지가 다스려지고 이를 따르면 양기가 고밀해져서 비록 적사가 있을지라도 해할 수 없으니 이는 사시의 순서에 순종함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정신을 집중하여 모으고 천기에 복종해서 신명을 통하게 합니다. 이를 그르치면 안으로 구구를 닫으며 밖으로 기육을 막히게 하여 위기가 흩어지니 이를 일러 스스로 해를 입는 것이라 하며 기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양기라는 것은 번노하면 항성하여 정이 끊어지고 여

11)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5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동원 비위론역석, 대성문화사, 1999, p. 23.

12) 상계서, p. 87.

13) 상계서, p. 20. : “經脈別論云, 食氣入胃, 散精於肝, 淫氣於筋. 食氣入胃, 濁氣淫精於脈, 脈氣流經, 經氣歸於肺, 肺朝百脈, 輸精於皮毛, 毛脈合精, 行氣於府, 府精神明, 流於四臟, 氣歸於權衡, 權衡以平, 氣口成寸, 以決死生. 飲入於胃, 遊溢精氣, 精氣上輸於脾, 脾氣散精, 精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水精四布, 五經并行, 合於四時, 五臟陰陽規度以爲常也.”

14) 상계서, p. 48. : “夫飲食入胃, 陽氣上行, 津液與氣, 入於心, 貫於肺, 充實皮毛, 散於百脈.”

15) 상계서, p. 150.

16)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8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국역 내외상변혹론, 대성문화사, 1995, p. 5.

17)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5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동원 비위론역석, 대성문화사, 1999, p. 88.

18) 상계서, p. 22. : “歷觀諸編而參考之則, 元氣之充足, 皆有脾胃之氣, 無所傷以後, 乃能養元氣.”

름에 중복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궤증을 생기게 하니 눈은 멀고 귀는 들리지 않게 되니 무너져 내리는 성과 같다. (生氣通天論云, 蒼天之氣, 清淨則志意治. 順之則陽氣固, 雖有賊邪, 弗能害也, 此因時之序. 故聖人, 傳精神, 服天氣, 而通神明. 失之則內閉九竅, 外壅肌肉, 衛氣散解, 此謂自傷氣之削也. 陽氣者, 煩勞則張, 精絕, 辟積於下, 使人煎厥, 目盲耳閉, 潰潰乎若壞都.)"라고 하여 청정함을 귀하게 여기고 번노함을 싫어하는 것이 병이 비위에서 생기는 이유라고 하였다. 둘째는 "「오상정대론」에 이르기를 음정이 받드는 바는 사람이 장수하고 양정이 하강하는 바는 사람이 요절한다. (五常正大論云, 陰精所奉, 其人壽. 陽精所降, 其人夭.)"라고 하여 '陰精所奉'은 비위가 조화되어 곡기가 상승하는 것으로 춘하의 기운이 작용하는 것이고 '陽精所降'은 비위가 불화하여 곡기가 하류하는 것으로 추동의 기운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병이 비위에서 생기는 이유라고 하였다. 셋째는 "「육절장상론」에 이르기를 비·위·대장·소장·삼초·방광은 창릉지본으로 영기가 기거해서 그릇이라 이름하였으니 능히 조박을 운행시켜 오미로 전화하여 드나들게 하는 곳이다. 그 변화는 입술에 나타나고 그 충실함은 기육에 있으며 그 맛은 단맛이고 그 색은 황색이니 이것은 지음의 무리로 토기와 상통한다. 무릇 십일장은 모두 담에서 취결한다. (六節藏象論云,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 倉廩之本, 榮之所居也, 名曰器, 能行糟粕, 轉味而入出者也. 其華在脣四白, 其充在肌, 其味甘, 其色黃, 此至陰之類, 通於土氣. 凡十一臟, 皆取決於膽也.)"라고 하여 膽의 少陽春升之氣가 상승하지 못하면 병이 생긴다고 하여 이것을 병이 비위에서 생기는 이유라고 하였다. 넷째는 "『내경』에 이르기를 하늘은 사람을 다섯 가지 기로서 먹여 기르고 땅은 사람을 다섯 가지 맛으로서 먹여 기른다. 다섯 가지 기가 코에 들어가면 심폐에 축적되어 위로 얼굴색을 윤택하게 하고 음성을 맑게 하며 다섯 가지 맛이 입으로 들어가면 장위에 들어가 저장되어 오장의 기를 기르니 기가 조화되어 생기고 진액이 만들어져 신이 스

스로 생겨난다. (經云,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 五氣入鼻, 藏於心肺, 上使五色修明, 音聲能彰. 五味入口, 藏於腸胃, 味有所藏, 以養五氣, 氣和以生, 津液相成, 神乃自生.)"라고 하여 이것을 병이 비위에서 생기는 이유라고 하였다.

(2)脾胃는 精氣 升降의 중심이다.

동원은 『내경』의 내용 중 천지의 승강운동에 의해 사계절의 生長收藏이 지속되며 그에 의한 우리 몸의 장부운동 또한 승강으로 표현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자연의 기의 승강에 대해서 기일원론적인 一氣의 순환이 있듯이 인체에서도 자연계의 一氣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니 그 근본을 胃氣로 보았다.<sup>19)</sup>

동원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언급함에 있어 『비위론』에서 『소문·천원기대론』을 인용하여 “하늘은 양이 낳고 음이 자라게 하며, 땅은 양이 죽이고 음이 저장한다. (天以陽生陰長, 地以陽殺陰藏.)”<sup>20)</sup>라고 하였고 『소문·육원정기대론』을 인용하여 “한해의 앞의 반은 천기가 다스리는데 오르는 작용을 하고, 한해의 뒤의 반은 지기가 다스리는데 내리는 작용을 한다. (歲半以前, 天氣主之, 在乎升浮也. … 歲半以後, 地氣主之, 在乎降沈也.)”<sup>21)</sup>라고 하였다. 이는 시간에 따른 승강부침을 설명한 것으로 춘하에는 地氣가 升浮하고 秋冬에는 天氣가 沈降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체에서도 승강부침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비위가 승강의 중심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이것을 『脾胃論·天地陰陽生殺之理在升降浮沈之間論』에서는 “만물 가운데 사람 하나만이 호흡으로 승강을 조절하니, 이는 천지를 본받은 것이며 음양을 본받은 표준이 된다. 대개 胃는 水穀之海가 되므로 음식이 胃로 들어가면 精氣가 먼저 脾로 운반되고 上으로 폐로 들어가서 春夏의 俞을 上行시켜 온 몸을 자양하니 이는 곧 淸陽이 하늘이 된다는 뜻이고

19) 정호진, 비위와 명문을 중심으로 한 승강의 원동력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 2001.

20)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5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동원 비위론역석, 대성문화사, 1999, p. 160.

21) 상계서, p. 161.

상승이 다하여 방광으로 下輸되면 秋冬의 水이 운행하여 糟粕을 傳化하므로 味가 바뀌어 배출케 되는데 이는 곧 濁陰이 땅이 된다는 뜻이다.”<sup>22)</sup> 라고 하였다.

여기서 동원은 脾氣의 升發을 특히 중시하였는데 치료에서 시호와 승마 등을 사용한 것은 그 生升하는 성질을 얻기 위한 것이다.<sup>23)</sup> 시호와 승마를 승양한다고 본 것은 동원의 독창적인 생각이며 다른 의서에서는 시호와 승마를 淸火解毒, 祛邪退熱한다고 하였다.<sup>24)</sup>

## 2. 內經과 內外傷 辨證

내외상을 감별하여 내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동원 의학사상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동원이 생활한 시대는 송·금·원 세 시대에 걸쳐 계속된 전쟁으로 백성들의 체질이 극도로 약화되어 기아나 노역 등으로 질병에 시달리거나 사망하는 자가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그는 의사가 침범하게 되는 근본원인을 내상에 의한 자체 방어력의 저하로 보아 외사를 제거하기보다는 부족된 원기를 보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화제국방』의 신열지제나 한랭약 또는 공하법으로는 오히려 원기가 손상되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당시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없음을 깨닫고 병인을 내상과 외감으로 구별하여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5)</sup> 內傷熱中證의 발열, 두통, 번갈 등의 증상은 외감 증상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히 다르므로 이를 감별하지 못한다면 치료할 때 착오를 범하기 쉽다. 이에 대해서 동원은 『내외상변혹론』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동원의 음증, 양증의 구분은 내외상변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데 『내경』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소문·음양용상대론』에서는 “하늘의 사기에 감촉되면 오장을 해치고 수곡의 한열에 감촉되면 육부를 해친다. (天之邪氣, 感則害人五藏, 水穀之寒熱, 感則害人六腑).”고 하였는데 동원은 『내외상변혹론·변음증양증론』에서 이를 인용하여 내상과 외감을 설명하고 있다. 외감은 “하늘의 사기에 감촉되면 오장을 해치는데 이는 팔익지사를 말하는 것이다. 사기인 풍이 사람의 근골을 상하게 하는데 풍은 위로부터 받는다. (天之邪氣, 感則害人五藏, 是八益之邪, 乃邪風傷人筋骨, 風從上受之.)”라 하여 ‘有餘之證’이라고 설명하였다. 내상은 “수곡의 한열에 감촉되면 육부를 해치는데 이는 칠손의 병으로 내상음을 말한다. 음식이 알맞지 않고 노역으로 상하면 습을 아래로부터 받는다. (水穀之寒熱, 感則害人六腑, 是七損之病, 乃內傷飲食也. … 適飲食不節, 勞役所傷, 濕從下受之.)”라 하여 ‘不足之證’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동원의 음증, 양증의 구분이 『내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26)</sup> 여기서 동원은 외감을 ‘八益之邪’라 하였고 내상을 ‘七損之病’이라 하였는데 이는 동원의 독특한 표현으로 외감은 사기가 실해서 생긴 것이고 내상은 정기가 허해서 생긴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또 동원은 『소문·조경론』의 “무릇 사기가 생기는 것은 음에서도 생기고 양에서도 생긴다. 양에서 생기는 것은 풍우한서 때문에 생기고 음에서 생기는 것은 음식, 거처, 음양, 회노에서 생긴다. (夫邪之生也, 或生於陰, 或生於陽. 其生於陽者, 得之風雨寒暑. 其生於陰者, 得之飲食居處, 陰陽喜怒.)”에서 음병과 양병을 구분하여 내상과 외감의 대별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소문·조경론』의 “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盛則外熱, 陰盛則內寒”에서 陽虛와 陽盛은 외감병기로 보고 陰虛와 陰盛은 내상병기로 보아 내외상 병기를 대별하였다.<sup>27)</sup>

22) 상계서, p. 162. : “蓋胃爲水穀之海, 飲食入胃, 而精氣, 先輸脾歸肺, 上行春夏之令, 以滋養周身, 乃淸氣爲天者也. 升已而下輸膀胱, 行秋冬之令, 爲傳化糟粕, 轉味而出, 乃濁陰爲地者也.”

23) 맹용계 외 옮김, 전계서, p. 154.

24) 양광열, 朱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 2001, p. 28.

25) 송철호, 金元사대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 1986, p. 29.

26)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8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국역 내외상변혹론, 대성문화사, 1995, p. 5.

내외상의 감별에 있어서 맥법에서는 인영맥이 기구맥보다 大하면 외감이고 기구맥이 인영맥보다 大하면 내상인데 이는 『영추·오색』의 “人迎盛堅者, 傷於寒; 氣口甚堅者, 傷於食.”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열의 감별에서 외감에서는 한열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고 熱이 肌膚에 있는데 이는 『소문·생기통론』의 “因於寒, … 體若燔炭, 汗出而散.”에 근거하고 있다. 내상에서는 한열이 번갈아 나타나거나 내상발열로 인하여 조열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근골과 사지에 나타나는 증상의 감별은 『소문·음양상대론』의 “寒傷形, 熱傷氣.”에 근거하고 있는데 내상에서는 열이 원기를 상하여 기욕이 이완되어 ‘必怠惰嗜臥, 四肢沈困不收’의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외감에서는 한사기 형체를 상하게 되어 근골이 동통하게 되는데 ‘非扶不起 筋骨疼痛不能動搖’하게 된다.

### 3. 內經과 甘溫除大熱法

『소문·조경론』에서 말하는 ‘陰虛生內熱’의 기전은 너무 지나친 노권함으로 形氣가 줄어들어 청탁을 오르내리게 하는 脾氣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穀氣가 머물러 행하지 못하고 울하여 발생한 열이 가슴속을 훈증하는 것이다.<sup>27)</sup> 『조경론』에서 神·氣·血·形·志의 有餘와 不足은 각각 心·肺·肝·脾·腎의 實證과 虛證을 나타내기 때문에 ‘形氣衰少’는 노권이 과도한 상태에서 脾氣가 손상을 받아 운화활 힘이 없어서 수곡의 정기가 생기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동원이 氣虛發熱에 升陽益胃하고 甘溫除熱하는 치법을 사용한 것은 내경의 ‘陰虛生內熱’의 기전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脾胃論 飲食勞倦所傷始爲熱中論』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脾胃의 氣가 허하면 腎으로 하류하고 음화가

그 土의 위치를 넘보기 때문에 脾證이 발생한다. 증상은 숨을 헐떡이고 몸에서 번열이 나고 그 맥은 홍대하며 머리가 아프고 갈증이 그치지 않으며, 그 피부는 풍한을 감당할 수 없어 한열이 발생한다. 대개 음화가 상충하면 숨을 헐떡이고 번열이 나며 머리가 아프고 갈증이 나며 맥이 홍하고 비위의 기가 하류하면 곡기를 승부케 하지 못하니 이는 봄의 생하는 기운이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양으로써 그 영위를 호위함이 없어 풍한에 견디지 못하고 한열을 생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비위의 기가 부족한 때문이다.<sup>29)</sup>

발열의 증상이 외감과 비슷하지만 내상부족의 병으로 치법을 달리해야 하므로 辛甘溫之劑로 補中升陽하고 甘寒으로 그 火를 사해야 한다고하여 보중익기탕을 창방하였다.

『조경론』의 ‘陰虛生內熱’과 후대에 말하는 ‘陰虛發熱’과는 차이가 있다. 음허발열은 陰精이 손상되어 陽을 제어하지 못해 陽이 항진된 상태인데 폐음허, 심음허, 간신음허 등이 원인이 된다. 潮熱과 五心煩熱이 특징이고 도한, 구건, 설홍상태, 맥세삭 등의 증상이 겸하여 나타난다. ‘陰虛生內熱’은 원인이 脾에 있으므로 甘溫益氣하는 치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동원의 ‘氣虛發熱’에 甘溫除熱하는 치법과 이론적 근거를 같이 한다. ‘陰虛發熱’은 병의 원인이 여러 장기에 있을 수 있는데 甘寒養陰과 滋陰降火를 위주로 치료해야 한다. 둘 모두 허증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氣虛이고 하나는 陰虛인 것이 다른 점이다.

단계는 ‘溫’字의 의미를 길러준다[養] 는 의미로 이해하고 동원이 寒熱溫涼의 溫자로 보고 따듯하게 한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였다.

『내경』에 이르기를, “形이 부족하면 氣로써 길러준다.”라고 하였다. 溫이라는 것은 기른다는 뜻이다. 길러준다는 것은 음식을 조절하고 절도 있

27) 진주표, 이동원 내외상변의 의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 2002, p. 34.

28) 『소문·조경론』“帝曰 陰虛生內熱, 奈何? 岐伯曰 有所勞倦, 形氣衰少, 穀氣不盛, 上焦不行, 下脘不通, 胃氣熱, 熱氣熏胸中, 故內熱.”

29) 脾胃氣虛, 則下流於腎, 陰火得以乘其土位. 故脾證時得, 則氣高而喘, 身熱而煩, 其脈洪大而顛痛, 或渴不止, 其皮膚不任風寒, 而生寒熱. 蓋陰火相衝, 則氣高喘而煩熱, 爲頭痛, 爲渴而脈洪. 脾胃之氣下流, 使榮氣不得升浮, 是春生之令不行, 則無陽以護其營衛 則不任風寒, 乃生寒熱. 此皆脾胃之氣不足所致也.

게 생활하며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멈추어 조용히 진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禮記』에서 말하는 ‘낮빛을 부드럽게 하여 기른다’라고 할 때의 이 ‘溫’자가 바로 이것과 같은 것이다. 혹 약으로 도와주는 것도 溫養한다고 한다. 동원은 溫을 溫涼의 ‘溫’자로 보고, 溫藥으로 원기를 보하고 火邪를 사하는 것을 말하였는데, 현명한 사람이라도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는 것이다.<sup>30)</sup>

또 동원집서의 『醫經溯洄集』<sup>31)</sup>에서도 『내경』의 ‘損者益之’를 ‘損者溫之’로 동원이 바꾸었다면서 자양한다는 뜻의 溫字를 동원이 따뜻하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소문·지진요대론』에서 분명히 ‘損者溫之’라고 하였고 『내의상변후론·음식노권론』에서 “甘溫之劑로 中을 補하여 그 陽을 升하며 甘寒으로서 그 火를 사하면 낮는다.”, “溫한 것은 능히 大熱을 제거한다.”<sup>32)</sup>라고 하여 溫字가 자양한다는 의미임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후대 의가들이 동원이 ‘溫’字를 따뜻하게 한다는 의미로 보았다고 비판하였으나 이것은 일면만을 본 것이라고 생각된다.

#### 4. 內經과 用藥의 특징

(1) 天和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내경』에서는 인간이 천지자연의 氣에 의해 생성되며 천지자연에 의지하여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생명활동을 영위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天人相參’<sup>33)</sup>, ‘天人相應’<sup>34)</sup> 또는 ‘天人共紀’<sup>35)</sup>라고 표현하였다.<sup>36)</sup> 이와 같이 천인상응의 관점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데 用藥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 『소문·오상정대론』에서는 “반드시 그 해의 운

기를 먼저 알고 자연과 조화되는 것이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sup>37)</sup>고 하였고 『소문·육원정기대론』에서는 “기후에 틀리게 하지 말고 운기에 거슬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sup>38)</sup>고 하였다. 이것은 그 해의 운기에 거스르지 말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소문·육절장상론』에서는 “그 해에 주관하는 기가 왕성하고 쇠약한 데 대한 것과 허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의사가 될 수 없다.”<sup>39)</sup>고 하여 의사는 마땅히 그 해의 태과와 불급을 알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동원도 天和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내경』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모든 병에 사계절에 맞추어 약을 쓰는 방법은 寒, 熱, 溫, 涼에 상관없이, 봄에는 淸涼한 風藥을 넣고, 여름에는 大寒한 약을 넣고, 가을에는 溫한 기약을 넣고, 겨울에는 大熱한 약을 넣는데, 이것은 생화의 근원을 끊지 않기 위한 것이다. 전중양이 소아를 치료할 때 이 이치를 깊게 터득하였다. 『내경』에 이르기를, “반드시 세기를 먼저 살펴 천화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최선의 치료이다. 또 “사시의 변화규율에 위배되지 않게 하고 천지간의 정상적인 생화규율을 어기지 말라.”고 하였고 “生生之氣를 벌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것들이 모두 常道가 되는 것이다.<sup>40)41)</sup>

이는 동원이 천화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의미를 그 해의 運氣를 따져 태과, 불급에 따라 약을 썼다가 보다는 四時에 맞게 寒熱溫涼을 맞추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병의 輕重과 병이 있는 부위에 따른 치법에 대

30) 허준, 대역동의보감, 법민문화사, 1999, p. 922.

31) 이고, 동원집총의서, 오주출판사, 대만, 1983, p. 653.

32)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8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국역 내의상변후론, 대성문화사, 1995, p. 23.

33) 『영추·세로』“人與天地相參也.”

34) 『영추·사괘』“此人與天地相應者也.”

35) 『영추·영위생회』“人與天地共紀.”

36) 정창현, 황제내경의 사유체계와 그 특징, 제10회 대한 한의학원전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p. 28.

37) 『소문·오상정대론』“必先歲氣, 無伐天和.”

38) 『소문·육원정기대론』“無失天信, 無逆氣宜.”

39) 『소문·육절장상론』“不知年之所加, 氣之盛衰, 虛實之所起, 不可以爲工矣.”

40)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5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동원비위론역석, 대성문화사, 1999, p. 229. : “夫諸病, 四時用藥之法, 不問所病, 或溫或涼或熱或寒, 如春時有疾, 於所用藥內, 加淸涼風藥, 夏月有疾, 加大寒之藥, 秋月有疾, 加溫氣藥, 冬月有疾, 加大熱藥, 是不絕生化之源也. 錢仲陽醫小兒深得此理. 內經, 必先歲氣母代天和, 是爲至治, 又曰無違時, 無伐化, 又曰無伐生生之氣, 此皆常道也.”

41) 허준, 전제서, p. 915.

해서도 『내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用藥의 커다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병이 생긴 초기에는 침을 놓아서 낮게 해야 하고 병이 한창 심해지는 때에는 병이 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료해야 한다. 병이 경하면 발산시키고 중하면 덜게 하고 몸이 약하면 좋아지게 하며 병이 상초에 있으면 토하게 하고 하초에 있으면 아래로 이끌어 없어지게 해야 하며 뱃속이 그득하면 설사시키고 속이 사기가 있으면 몸을 젖도록 땀을 내야 한다. 병이 피부에 있으면 땀을 내어 발산시켜야 하고 급하고 맹렬하면 눌러서 억제해야 하고 실하면 발산시키고 설사시켜야 한다.<sup>42)43)</sup>

병의 경중에 있어서는 “微者逆之, 甚者從之”<sup>44)</sup> 해야 함을 말한 것이고 병이 상초에 있으면 토하게 하고 하초에 있으면 설사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동원도 『내경』의 이론을 충실히 따라 『脾胃論·用藥宜禁論』에서 四時에 따른 汗·吐·下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時禁이란 사계절의 기운이 승강하는 이치에 맞추어 汗法, 下法, 吐法, 利法을 적절히 쓰는 것이다. 봄에는 토하게 해야 하니, 만물이 피어나는 것을 본받아 양기가 막힌 것을 쉽게 뚫어 주는 것이다. 여름에는 땀을 내야 하니, 만물이 떠올라 여유로운 모습을 본받은 것이다. 가을에는 설사시켜야 하니, 만물이 영글고 익어 가는 것을 본받아 묵은 것을 밀어내고 새것으로 채우는 것이다. 겨울에는 빈틈없이 채워야 하니, 만물이 꼼꼼히 간직하는 것을 본받아 양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sup>45)</sup>

이와 같이 용약을 하는데 자연과의 조화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내경의 주장을 동원은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였다. 정리하면 四時에 따라 한열온량을 구분해서 약을 써야하고 또 사시의 승강부침에 맞게 봄에는 토하게 하고 여름에는 땀을 내고 가을에는 설사시키고 겨울에는 양기를 고밀하게 하는 치법을 사용하였다. 또 병의 위치에 따라 병이 상초에 있으면 토하게 하고 병이 하초에 있으면 설사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四時의 한열온량에 따른 치료는 후대에 보중익기탕의 사시에 따른 가감법에서 구체화 되었다.<sup>46)</sup>

『내경』에서 미약한 것은 역치하고 심한 것은 중치하라고 하였는데 『소문·기병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逆이란 正治를 말하고 從이란 反治를 말하는데, 약물의 다소는 그 상황에 따른다. 황제가 묻기를, ‘反治는 어떠한 것입니까?’라고 하니, 기백이 답하기를, ‘열약을 쓸 때 차게 해서 쓰고 한약을 쓸 때 뜨겁게 해서 쓰며, 막는 방법[塞法]을 막힌 증상에 쓰고 설사시키는 방법을 설사할 때 쓰는 것인데, 반드시 근본을 잡아야 하고, 먼저 병의 원인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같더라도 치료에 따라 끝은 달라집니다. 적취를 깰 수 있고 단단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기를 조화롭게 하여 반드시 병을 낮게 합니다.’라고 하였다.<sup>47)</sup>

동원은 『내경』에서 말한 중치와 역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약한 것은 역치로 다스리고, 심한 것은 중치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을 열로 치료할 때는 반드시 식혀서 쓰고, 열을 한으로 치료할 때는 반드시 데워서 쓰는 것이니, 이것은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병은

42) 『소문·음양상대론』 “病之始起也, 可刺而已, 其盛, 可待衰而已. 故因其輕而揚之, 因其重而減之, 因其衰而彰之. 形不足者, 溫之以氣, 精不足者, 補之以味, 其高者, 因而越之, 其下者, 引而竭之, 中滿者, 寫之於內, 其有邪者, 瀆形以爲汗. 其在皮者, 汗而發之, 其慄悍者, 按而收之, 其實者, 散而寫之.”

43) 허준, 전게서, p. 913.

44) 『소문·지진요대론』

45) 동원비위론역석, p. 69. : “夫時禁者, 必本四時升降之理, 汗下吐利之宜. 大法 春宜吐, 象萬物之發生, 耕耨科斫, 陽

氣之鬱者, 易達也. 夏宜汗, 象萬物之浮而有餘也. 秋宜下, 象萬物之收成, 推陳致新, 而使陽氣易收也. 冬周密, 象萬物之閉藏, 使陽氣不動也.”

46) 허준, 전게서, p. 1140.

47) 『소문·기병론』 “岐伯曰 逆者正治, 從者反治, 從少從多, 觀其事也. 帝曰 反治何謂? 岐伯曰 熱因寒用, 寒因熱用; 塞因塞用, 通因通用, 必伏其所主, 而先其所因, 其始則同, 其終則異, 可使破積, 可使潰堅, 可使氣和, 可使必已.”



미약한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도 있는데, 미약한 것을 역치로 다스리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고, 심한 것을 중치로 다스리는 것은 임기응변의 방법이다.<sup>48)</sup>

미약한 것을 역치로 다스린다는 것은 正治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寒病을 熱藥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심한 것을 중치로 다스린다는 것은 反治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熱病이 심하면 寒藥을 데워서 쓰는 것으로 熱因寒用, 寒因熱用을 말하는 것이다.

한열병에 있어서 한열로 보고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음양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소문·지진요대론』에서 설명하고 있다. 열병에 차게 해도 열이 나고, 한병에 뜨겁게 해도 추우며, 한열이 모두 있는데 새로운 병이 다시 생기는 것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라는 황제의 질문에 기백은 차게 해도 열이 나는 경우에는 음을 보하고, 뜨겁게 해도 추운 경우에는 양을 보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이른바 그 근본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49)</sup>

『내경』에서 이를 ‘所謂求其屬’이라 하여 그 속한 바를 구하라고 하였는데 동원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寒病에 열약을 복용하여도 寒이 물러나지 않고, 열병에 寒藥을 복용하여도 열이 물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제현자가 말하기를, “열이 한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수가 없기 때문이고, 한이 열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화가 없기 때문이다. 차갑게 하여도 차가워지지 않는 것은 수가 없기 때문이고, 뜨겁게 하여도 뜨거워지지 않는 것은 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經』에 이르기를, “그 변화의 근원을 자양한다.”라고 하였으니, 근원이 끊어진 뒤에는 약기운을 빌려

도 그 眞水와 眞火를 기를 수 없다.

한을 열로 치료하여도 한이 더욱 심해지고, 열을 한으로 다스려도 열이 더욱 치성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오장의 음양을 알지 못하고 음양에 의거하여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령 심실로 열이 나는 경우 腎을 도와야 하니, 腎水가 자라면 열이 저절로 사라진다. 腎虛로 한이 생기는 경우 심을 보하여야 하니, 심화가 내려가면 한이 저절로 사라진다. 이것이 이른바 ‘차갑게 하여도 열이 나는 것은 음에서 취하고, 뜨겁게 하여도 차가운 것은 양에서 취한다.’고 하는 것이다.<sup>50)</sup>

이와 같이 동원은 『소문·지진요대론』에서 말하는 한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水火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수화는 심과 신을 말하는 것으로 「지진요대론」에서 말하는 음양과 상통하는 것이다. 동원은 실제 임상에서 자신환을 처방하여 구속법을 응용하였다. 어떤 상공이 두 다리가 무력하고 배꼽 아래와 콩무늬가 모두 차며, 정이 잘 새어나갔는데, 녹용환을 먹어도 병세가 덜해지지 않았다. 동원이 맥을 짚어보니 침, 삭하면서 힘이 있었다. 동원이 말하기를, “이것은 술과 기름진 음식을 먹고 속에서 화가 자라나 밖으로 음을 억누르는 것이다. 의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열약을 투약하여 음을 도리어 사하고 양을 보하였으니, 참으로 ‘實實虛虛’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환을 처방해 주었는데, 2번복용하고서 나왔다. 누군가 그 이유를 물으니, 답하기를, “이 병은 상화가 왕성하여 음을 억누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大寒한 약으로 상화를 사하여 진음을 회복시킨 것이다. 진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피부 속의 찬기운이 사라진다.”라고 하였다.<sup>51)</sup>

이와 같이 동원은 용약에 있어서 내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동원은 자연과의 조화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커다란 원칙아래 四時의 寒熱溫涼, 병의 경중, 병의 부위에 따라 각각 처방을 달리

48) 이고, 동원집종서, 오주출판사, 대만, 1983, p. 565. : “又聞微者逆之, 甚者從之, 何謂也? 蓋治寒以熱, 必涼而行之, 治熱以寒, 必溫而行之, 此亦欲其調和也. 其間有正有權者何也? 蓋病有微有甚, 微者逆治, 理之正也, 甚者從治, 理之權也.”

49) 『소문·지진요대론』“有病熱者, 寒之而熱, 有病寒者, 熱之而寒, 二者皆在, 新病復起, 奈何治? 岐伯曰 諸寒之而熱者, 取之陰; 熱之而寒者, 取之陽, 所謂求其屬也.”

50) 허준,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1999, p. 920.

51) 상계서, p. 788.

하였다.

(2) 升陽之法에 관하여

동원은 입상에서 補中, 升陽, 益胃하는 치법을 입상적으로 운용하였는데<sup>52)</sup> 처방 이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53)</sup> 그 중에 升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① 脾胃의 清氣를 끌어올린다는 의미

『내외상변혹론·음식노권론』에서는 『소문·경백별론』을 인용하여 음식이 胃로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sup>54)</sup> 여기서 음식물의 精氣가 胃에서 脾로 전해져 肺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보중익기탕과 익위승양탕에서 승마와 시호가 하는 역할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원이 처방명에서 升陽이라고 한 의미이다. 보중익기탕의 방해를 보면 “胃中の 清氣가 下에 있으니 반드시 승마, 시호를 가하여 上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 두가지 약물은 썩푸하니 味가 薄한 것은 陰中之陽이라 하므로 清氣를 이끌어 상승시킨다.”<sup>55)</sup>라고 하였다. 또 승양순기탕의 방해에서 “脾胃가 부족한 증상에 모름지기 승마, 시호를 사용한다. 썩푸는 味의 薄한 것으로 陰中之陽이니 脾胃중의 清氣를 끌어 陽道 및 諸經의 生發陰陽之氣를 行하게 하여 春氣의 조화로움을 자양케 한다.”, “그러므로 비위를 치료하는 약에 ‘升陽’이나 ‘補氣’라는 이름이 많이 붙은 것은 이 때문이다.”<sup>56)</sup>라고 하였다. 탕액본초의 인삼에서 “승마로 이끌지 않으면 상승하는 기를 보하지 못한다.”<sup>57)</sup>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52) 맹응계 외 옮김, 전계서, p. 129.

53) 동원의 처방 중에서 보중익기탕, 익위승양탕, 승양익위탕, 승양제습탕, 승양제습화혈탕, 승양순기탕, 승양보위탕, 승양산화탕, 승양보기탕, 승양익위산 등이 있다.

54)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8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국역 내외상변혹론, 대성문화사, 1995, p. 23. : “飲食入胃, 遊溢精氣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55) 상계서, p. 26.

56) 상계서, p. 34.

57) 이고, 동원집중의서, 오주출판사, 대만, 1983, p. 403.

② 發汗의 의미

동원이 설사를 치료할 때 升陽시키는 약을 써야한다고 했는데 이 때 升陽의 의미는 脾胃의 清氣를 끌어올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發汗의 의미이다. 『內外傷辨惑論·腎之脾胃虛方』과 『脾胃論·調理脾胃治驗』에서 설사를 치료할 때 초기에는 『내경』에서 말한 “其下者, 引而竭之”<sup>58)</sup>의 치법에 따라 淡滲한 약으로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寒濕의 客邪가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심해진 경우에는 升陽시키는 風藥을 써야한다고 하면서 강활, 獨活, 羌活 등을 예로 들었다.

『내경』에 이르기를 “在下者, 引而竭之”라고 하니 이는 먼저 利小便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대부분의 설사하면서 소변이 불리한 것을 치료할 때도 먼저 분리해야 하니 또한 이르기를 “濕을 치료함에 利小便의 방법이 아니면 치료되지 않는다.”라 하였다. 법은 마땅히 利小便해야 하니 반드시 淡滲之劑로 잘 나가게 하는 것이 그 법이다. 슬프도다! 성인의 법이 비록 그 방책을 펼쳐 놓았으나 그 미진한 바는 뜻으로 구해야 하거늘 지금 寒濕의 客邪가 勝하여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와 심히 폭급한데 淡滲之劑로 利하면 병은 비록 지금 낫더라도 降하는 것을 더욱 降하게 하니 그 陰은 거둬 더하게 되고 그 陽은 거둬 고갈하게 되어 陽氣가 더욱 줄어들고 정신이 더욱 없어지게 된다. 陰은 거둬 강하고 陽은 거둬 쇠하니 升陽의 약이 마땅할 뿐이다. 강활, 獨活, 승마 각 1돈, 羌活 반돈, 자감초 반돈을 함께 잘게 썰어 물 4잔에 넣고 1잔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뜨겁게 복용하니 한번 먹으면 낫는다. 대법에 이르기를 “寒濕이 勝하면 風으로 도와 平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또한 이르기를 “下者는 舉之한다.”고 하니 이것은 陽氣가 升騰함을 얻어 낫는 것으로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무릇 성인의 법은 유추할 수 있으니 하나를 미루어 백을 알 수 있다.<sup>59)</sup>

58) 『소문·음양상대론』

59)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8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국역

애석하도다! 성인의 치법이 비록 방책에 널리 있더라도 후인이 그 치법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치료하는 것을 가히 책망할 따름이다. 이제 客邪인 寒濕의 사기가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심해진 것을 만약 이상의 범도를 좇아 淡滲한 약제로 제거하면 실사는 비록 그치나 하강된 것은 더욱 하강시키니 이는 더욱 그 陰邪를 도와 양기가 重竭해지는 것이고 양기가 더욱 부족하게 되므로 정신이 더욱 쇠약해지는 것이며 음이 더욱 강성해지고 양은 거듭 쇠약해져서 도리어 그 음사를 돕는 것이다. 고로 반드시 升陽시키는 風藥을 사용하면 차도가 있을 것이니 강활, 독활, 시호, 승마 각 1돈, 방풍, 자감초 반돈을 함께 잘게 썬어 물 4잔이 1잔에 이를 때까지 끓여 찌꺼기를 없애고 조금씩 뜨겁게 복용한다. 대법에 이르기를 “寒濕이 勝한 것은 風을 도와서 다스린다.”라 하고 또한 “下者舉之”라 한 것은 양기를 勝騰케 하여 사기를 제거하는 것이며 또 법에 이르기를 “客邪除之”라 한 것은 굽은 것을 바르게 하는 것처럼 원인이 되는 사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무릇 성인의 범도를 유추해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백병과 그 치료법을 알게 하였으니 만약 이런 승강부침의 이치를 통달하지 않고 모두 일괄적으로만 치료하면 낮은 것이 요행이라 하겠다.<sup>60)</sup>

내외상변혹론, 대성문화사, 1995, p. 50. : “內經有云 在下者引而竭之, 是先利小便也. 又治諸瀉而小便不利者, 先分利之. 又云治濕, 不利小便, 非其治也, 法當利其小便, 必用淡滲之劑, 以利之, 是其法也. 噫聖人之法, 雖布在方策, 其不盡者可以意求, 令客邪寒濕之勝, 自外入裏, 而甚暴, 若以淡滲之劑, 利之, 病雖即已, 是降之又降, 復益其陰, 而重竭其陽也, 則陽氣愈削而精神愈短矣, 陰重強而陽重衰也, 茲以升陽之藥, 是爲宜耳. 羌活獨活升麻各一錢, 防風半錢, 炙甘草半錢, 同咬咀, 水四盞, 煎至一盞, 去粗, 熱服一服, 乃愈. 大法云 寒濕之勝, 助風以平之, 又曰下者, 舉之, 此得陽氣升騰, 故愈. 是因曲而爲之直也, 夫聖人之法, 可以類推, 舉一, 則可以知百矣.”

60)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5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동원비위론역석, 대성문화사, 1999, p. 172. : “噫聖人之法, 雖布在方冊, 其不盡者, 可以求責耳. 今客邪寒濕之淫, 從外而入裏, 以暴加之, 若從已上之法度, 用淡滲之劑, 以除之病, 雖即已是降之又降, 是復益其陰而重竭其陽氣矣. 是陽氣愈削, 而精神愈短矣, 是陰重強而陽重衰矣. 反助其邪之謂也, 故必用升陽風藥即差, 以羌活 獨活 柴胡 升麻 各一

『脾胃論·肺之脾胃虛論』과 『內外傷辨惑論·肺之脾胃虛方』에 나오는 升陽益胃湯의 升陽의 의미도 두 번째에 해당한다. 가을에燥한 기운이 들어오면서 濕熱이 물러날 때 몸이 무겁고 물을 뿌린 것처럼 으실으실 추운 것은 陽氣가 퍼지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升陽益胃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들어있는 강활, 독활, 방풍도 약간 땀을 내면서 陽氣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비위가 허하면 게으르고 눅기를 좋아하며 사지를 거두지 못한다. 만일 가을에燥의 기운이 유행하고 습열이 조금 물러나는 때를 만나면 몸이 무겁고 아프며 口苦, 舌乾하며 입맛이 없고 대변이 고르지 못하며 소변을 자주 보고 좋아하는 음식이 없으며 잘 소화되지도 않고 겸해서 폐병의 증상인 몸이 물을 뿌린 듯이 오한에 떨며 저참한 듯이 즐거워하지 않고 얼굴색이 나쁘면서 조화롭지 않게 되니, 이는 모두 陽氣가 퍼지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마땅히 升陽益胃해야 하니 여기에 쓰는 처방을 升陽益胃湯이라 명명한다.<sup>61)</sup>

『脾胃論·調理脾胃治驗』과 『內外傷辨惑論·暑傷胃氣論』에 나오는 승양산화탕도 마찬가지로이다. 五心煩熱의 증상이 있을 때 火鬱한 것은 發散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강활, 독활, 방풍 등의 風藥이 들어 있다.

남자와 부인의 사지에서 열이 나고 근육이 저리며 골수 속에서 열이나 불에 쪼이는 것 같고 만지면 손이 뜨거운 것을 치료한다. 이 병은 흔히 혈허로 발생하거나 혹은 胃가 허한데 찬 것을 과식하여 陽氣가 脾土에 울체된 것이니 火鬱한 것은 發散시켜야 한다.<sup>62)</sup>

錢, 防風根截反錢, 炙甘草根截半錢, 同咬咀水四盞煎至二盞, 去粗 稍熱服. 大法去濕寒之勝, 助風以平之, 又曰下者舉之, 得陽氣升騰而去矣. 又法云 客者除之, 是因曲而爲之直也. 夫聖人之法, 可以類推, 舉一而知百病者也. 若不達昇降浮沈之理, 而一槩施治, 其愈者幸也.”

61) 상계서, p. 55. : “脾胃之虛, 怠惰嗜臥, 四肢不收, 時值秋燥令行, 濕熱小退, 體重節痛, 口苦舌乾, 食無味, 大便不調, 小便頻數, 且不飢食不消, 兼見肺病, 洒淅惡寒, 慘慘不樂, 面色惡而不和, 乃陽氣不伸故也. 當升陽益胃, 名之曰 升陽益胃湯.”

『난실비장·잡병문』에 나오는 升陽湯은 升陽이 땀을 내는 의미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陽蹠癘疾을 치료하니 족대양경의 寒이 두려워 氣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땅히 陽氣를 끌어 올려야 하는 것이다. 자감초 5돈, 마황, 방풍 각 8돈, 강활 1냥5돈. 위의 약물을 잘게 썬어 5돈씩 복용하되 물 2잔에 넣어 1잔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빈속에 조금씩 뜨겁게 복용한다.<sup>63)</sup>

땀을 내는 것은 본래 陽을 돕는 것<sup>64)</sup>이기 때문에 동원은 風藥을 써서 약간의 땀을 내는데 升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땀을 낸다는 것이 상한을 치료하는 發汗法과는 다르기 때문에<sup>65)</sup> 동원도 發汗이라는 용어 대신에 升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동원이 말한 升陽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中氣가 부족할 때 脾胃의 淸氣를 끌어올린다는 의미로 補中益氣湯이나 益胃升陽湯이 대표적이며 둘째는 땀을 약간 내어 발산시킨다는 의미로 升陽益胃湯이 대표적이다. 그 외의 몇몇 처방<sup>66)</sup>에서는 승마, 시호, 강활, 독활, 방풍이 함께 들어가 升陽의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기도 한다.

## 5. 內經과 病因의 분석

동원은 비위론에서 胃가 虛하면 장부, 경락이 氣를 받지 못하여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sup>67)</sup> 胃가

虛하면 元氣가 부족하여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고 주장하였다.<sup>68)</sup> 또 「脾胃虛實傳變論」과 「脾胃虛則九竅不通論」에서는 『소문·통평허실론』의 「頭痛耳鳴 九竅不利 腸胃之所生也」를 인용하여 九竅의 문제도 비위에서 원인이 되어 발생함을 밝히고 있다. 『蘭室秘藏·眼耳鼻門』에서도 오장육부가 정기를 비로부터 받아 눈으로 통하므로 비허하면 눈이 밝지 못하다고 하면서 의사들이 눈병을 치료할 때 脾胃를 조리하고 養血安神하지 않는 것은 바른 이치에 밝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sup>69)</sup> 이와 같이 병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脾胃의 문제를 중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문제를 脾胃만의 문제로 본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동원이 혈폐와 봉주의 원인을 삼초를 중심으로 살폈음을 밝히고 그의 병인 분석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 (1) 經閉와 崩漏

동원은 월경이 나오지 않는 경폐의 원인을 삼초를 기준으로 인식하였는데 상·중·하초 각각에 열이 있으면 경폐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蘭室秘藏·婦人門·經閉不行有三論』에서 경폐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부인이 비위가 허하거나 몸이 마르고 기혈이 모두 쇠하여 월경이 끊어지거나 혹은 中消로 胃熱 때문에 잘먹어도 점점 마르고 진액이 생기지 않는다. (중략) 심포맥이 흥삭하고 때때로 躁하며 대변이 비삽하고 소변은 비록 맑으나 불리하면서 경수가 끊어져 행하지 않는데 血海가 마른 것이다. (중략) 혹 勞心으로 心火가 上行하여 月事가 오지 않는다.<sup>70)71)</sup>

62) 상계서, p. 179.

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8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국역 난실비장, 대성문화사, 1995, p. 294.

64) 이고, 동원십종역서, 오주출판사, 대만, 1983, p. 281. : “汗者, 本所以助陽也, 若陽受陰邪, 寒結無形, 須當發去陰邪, 以腹陽氣, 所謂益陽, 而除風寒客氣也.”

65)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5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동원 비위론역서, 대성문화사, 1999, p. 34. : “大法에 ‘汗之則愈, 下之則死’라 한 것은 辛甘藥으로 滋潤하여 當升當浮하면 生長之氣로 하여금 왕성하게 한 것과 같으니 그 汗이라고 말한 것은 순수한 發汗이 아니고 助陽함을 말하는 것이다.”

66) 승양보위탕, 승양보기탕.

67) 동원비위론역서, p. 154. 「胃虛臟腑經絡皆無所受氣而俱病論」

68) 상계서, p. 158. 「胃虛元氣不足諸病所生論」

69) “夫五臟六腑之精氣, 皆稟受於脾, 上貫於目, 脾者諸陰之首也. 目者血脈之宗也. 故脾虛則五臟之精氣皆失所司, 不能歸明於目矣. 心者, 君火也, 主人之神, 宜靜而安, 相火, 代行其令, 相火者, 包絡也, 主百脈, 皆榮於目, 既勞役運動, 勢乃妄行. 又因邪氣所并, 而損血脈, 故諸病生焉. 凡醫者, 不理脾胃, 及養血安神, 治標, 不治本, 是不明正理也.”

70)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8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국역 난실비장, 대성문화사, 1995, p. 206. : “婦人, 脾胃久虛,

동원이 본 경폐의 원인은 첫째는 중초 胃에 열이 뭉쳐서 생긴 것이고 둘째는 血海가 마른 것으로 하초 胞脈에 열이 뭉쳤기 때문이다. 셋째는 상초에 있는 심·간·폐에 열이 뭉쳤기 때문이다.<sup>72)</sup> 이와 같은 병인 분석은 삼초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동의보감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胃가 약하고 血枯가 생겨서 월경이 끊어진 데는 보중익기탕에 천궁, 생지황, 천화분을 넣어 써야 하고 심포맥이 흥삭하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通經湯<sup>73)</sup>을 써야 한다. 마음을 너무 써서 월경이 중단되었을 때는 柏子仁丸<sup>74)</sup>이나 澤蘭湯<sup>75)</sup>을 써야 한다.

동원은 붕루의 원인도 삼초에 따라 세 가지로 보고 치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蘭室秘藏·婦人門·經漏不止有三論』에서는 붕루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부인이 비위가 허손하여 命門脈이 沈, 細하면서 數, 疾하거나 혹은 沈, 弦하면서 洪, 大, 有力하고 寸關脈도 역시 그러하면 이는 모두 비위가 허하여 腎으로 下陷하여 상화와 서로 합하고 습열이 下陷한 것이니 경우가 그치지 아니하게 된다. (중략) 혹 사람이 전에는 귀했다가 세력을 잃어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혹 전에는 부유했다가 후에 가난하게 되어 心氣가 부족해져서 그로 인해 화가 성하여 혈맥중에 왕성하고 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니 화가 중초에 침범

하였으나 형질, 기육, 얼굴은 병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심병이다. (중략) 비애가 너무 심하면 포락이 끊어지게 된다.<sup>76)77)</sup>

붕루의 원인으로 비위가 허손되어 생긴 것은 중초의 문제이며 탈영이나 설정으로 심기가 부족해서 생긴 것은 상초의 문제이다. 너무 슬퍼하여 포락이 끊어져서 생긴 것은 하초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각각에 대하여 처방을 제시하였는데 胃의 기운이 처져서 갑자기 아래로 피가 나오는 데는 升陽調經湯<sup>78)</sup>이나 益胃升陽湯<sup>79)</sup>이나 升陽除濕湯<sup>80)</sup>이나 柴胡調經湯<sup>81)</sup>을 쓴다. 우울한 적이 있었거나 이전에 잘살다가 가난해진 것으로 붕루가 생긴 데는 開鬱四物湯<sup>82)</sup>을 쓴다. 지나치게 슬퍼하고 서러워하여 붕루가 생긴 데는 備金散<sup>83)</sup>이나 四製香附丸을 쓴다.

或形羸氣血俱衰, 而致經水斷絕不行, 或病中消, 胃熱, 善食, 漸瘦, 津液不生. …… 或心包脈洪數, 躁作時見, 大便閉澀, 小便雖清, 不利, 而經水閉絕不行, 此乃血海乾枯. …… 或因勞心, 心火上炎, 月事不來.”

71) 허준, 전계서, p. 362

72) 동의과학연구소 옮김, 동의보감, 휴머니스트, p. 1373. 루영이 주를 달았다.

73) 허준, 전계서, p. 363. : “通經湯 治月閉. 當歸, 川芎, 白芍藥, 生乾地黃, 大黃, 官桂, 厚朴, 枳殼, 枳實, 黃芩, 蘇木, 紅花各七分. 右剉, 作一貼. 入烏梅一箇, 薑三片, 棗二枚, 水煎服. 心氣不得下通, 故月事不來. 宜用黃連, 厚朴之類, 導痰降火, 則月事來矣. 此藥是也. 宜加黃連七分.”

74) 상계서, p. 363. : “柏子仁丸 治勞心月閉. 澤蘭二兩, 柏子仁炒另研, 牛膝酒焙, 卷柏各一兩. 右爲末, 蜜丸梧子大, 空心, 米飲下五十七丸.”

75) 상계서, p. 363. : “澤蘭湯 治同上. 澤蘭葉二錢, 當歸, 白芍藥炒, 甘草各一錢. 右剉, 作一貼, 水煎服.”

76)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8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국역 난실비장, 대성문화사, 1995, p. 207. : “婦人, 脾胃虛損, 致命門脈, 沈細而數疾, 或沈弦而洪大有力, 寸關脈, 亦然, 皆由脾胃有虧, 下陷於腎, 與相火相合, 濕熱下迫, 經漏不止. … 或人故貴脫勢, 人事稀少, 或先富後貧, 心氣不足, 其火大熾, 旺於血脈之中, 又致脾胃飲食失節, 火乘其中, 形質肌肉容顏, 似不病者, 此心病者. … 悲哀太甚, 則胞絡絕也.”

77) 허준, 전계서, p. 367.

78) 상계서, p. 369. : “升陽調經湯 治內傷, 中氣下陷, 暴崩不止. 柴胡, 羌活, 蒼朮, 黃芪各一錢, 當歸, 防風, 升麻, 蘘本, 甘草各七分, 蔓荊子五分, 獨活三分. 右剉, 作一貼, 水煎服, 以飯壓之.”

79) 상계서, p. 369. : “益胃升陽湯 治血塊暴下, 并水泄俱作, 是前後二陰有形血脫竭於下也. 血脫益氣, 古聖人之法, 此陽生陰長之義也.”

80) 상계서, p. 369. : “升陽除濕湯 治崩漏不止, 因脾胃虛而心包乘之, 故血漏而下. 黃芪, 蒼朮, 羌活各一錢, 柴胡, 升麻, 防風, 蘘本, 甘草各七分, 蔓荊子五分, 獨活, 當歸各三分. 右剉, 作一貼, 水煎服.”

81) 상계서, p. 369. : “柴胡調經湯 治同上. 蒼朮一錢半, 柴胡一錢, 羌活, 獨活, 蘘本, 升麻各七分, 葛根, 當歸, 甘草各五分, 紅花二分. 右剉, 作一貼, 水煎服. 已上四方, 皆升舉之劑, 先服益胃升陽湯, 不止, 却服後二方. 乃大舉, 大升, 助春夏二濕之久陷下之至治也.”

82) 상계서, p. 369. : “開鬱四物湯 治崩漏, 多因心氣所使而下, 故貴奪勢, 先富後貧, 皆是也. 香附米炒, 當歸身, 白芍藥酒炒, 熟地黃, 白朮各一錢, 川芎, 黃芪, 蒲黃炒, 地榆, 人參各五分, 升麻三分. 右剉, 作一貼, 煎服.”

83) 상계서, p. 368. : “備金散 治血崩不止. 香附子炒黑四兩, 當歸尾一兩二錢, 五靈脂炒一兩. 右爲末, 每二錢, 醋湯調, 空心服. 一名備金散.”

이와 같이 병인을 삼초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동원이 그의 스승인 장원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장원소는 구토의 원인을 다음가 같이 삼초에 따라 구분하였다.

토하는 데는 3가지 원인이 있다. (중략) 상초에서 생기는 구토는 기와 연관된 것이다. (중략) 중초에서 생기는 구토는 모두 積으로 생기는 것이다. (중략) 하초에서 생기는 구토는 모두 寒邪로 생기는 것이다.<sup>84)</sup>

결론적으로 동원이 비위를 중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병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삼초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향은 후에 동원의 제자인 라천익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는 비위학설을 통해 三焦寒熱證治를 밝힘으로써 스승의 학문을 발전시켰다.<sup>85)</sup>

내경에는 삼초에 관한 언급이 여러 편에 나오는데 육부의 한 기관이면서 동시에 상초, 중초, 하초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소문·영란비전론』과 『영추·본수』에 나오는 삼초에 관한 언급은 삼초가 수액대사를 주관하는 육부의 하나이면서도 오장과의 직접적 연계는 없는 府임을 알 수 있다. 또 『영추·영위생회』에서는 인체의 세 부위를 총칭하는 의미도 갖는다. 내경에서는 이 두 개념이 합하여져 진액을 처리하는 기능을 맡은 한 기관이면서도 동시에 상중하 세 부위의 생리기능을 포괄하는 이중적 의미로 사용된다.<sup>86)</sup> 또 『영추·영위생회』에서 “상초는 안개와 같고 중초는 거품과 같으며 하초는 도랑과 같다.”<sup>87)</sup>고 한 것은 인체의 세 부위를 총칭하지만 그것이 실질적 형태를 가졌다고 보다는 작용을 중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경에서는 삼초를 작용 위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입문에서는 水穀之道路라고 하여 구체적 유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의과학적으로 삼초에 대해서 작용을 중심으로 보는 견해가 구체적 유형이 있는 쪽으로 바

뀌고 있다.

동원의 제자인 元나라 王好古가 쓴 『차사난지』에 나온 삼초에 관한 언급을 통하여 동원의 삼초에 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상중하 삼초의 기는 하나로 되어 몸을 보위한다. 삼초는 완전한 부가 아니므로 형체는 없고 작용만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내경의 관점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또 “상초는 안개와 같으므로 기가 되고 하초는 도랑과 같으므로 혈이 되고 중초는 기혈이 나뉘는 곳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영추·결기』의 “상초가 고루 퍼져 나가게 하며 살갓을 덥게 하고 몸을 충실히 하며 털을 윤기나게 하는 것이 마치 안개와 이슬이 축여 주는 것과 같다. 이것을 기라고 한다.”<sup>88)</sup>고 한 내용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동원은 삼초에 있어서 내경의 관점을 이어 받고 있으며 병증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脾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모든 것을 중초의 문제만으로 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2) 小便의 이상

소변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하여 『내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문·경맥별론』에서 “물이 위에 들어와서 精氣가 넘치면 위[上]로 脾에 전해지고 脾氣가 정을 흠어서 폐에 올려 보내면 폐는 水道를 조절하여 방광으로 내려 보낸다. 水의 정기는 사방으로 퍼지고 오장의 경맥과 함께 흐르며 사계절에 따른 오장의 음양변화와 함께 하니, 이것을 해아려 常道로 삼아야 한다.”<sup>89)</sup>라고 하였다. 동원은 내경의 소변 생성 기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변은 마신 것의 정미한 기가 상승하여 비와 폐가 운화한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줌은 물인데,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 그 본성이다. 마신 것이 胃로 들어가면 비록 그 정기는 상승하지만, 그 본체가 상승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소

84) 상계서, p. 1215.

85) 맹용재 외 옮김, 전계서, p. 192.

86) 지규용, 새로운 한의학 터잡기(II), 일중사, 2004, p. 278.

87) “上焦如霧, 中焦如瀉, 下焦如瀆.”

88) “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充身澤毛, 若霧露之溉, 是謂氣.”

89) “飲入於胃, 遊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水精四布, 五經並行, 合於四時五藏, 陰陽揆度以爲常也.”

변이 기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경』에 이르기를, “방광은 진액을 저장하는데, 기화에 의해 배출한다.”라고 하였다. 또, 水는 氣의 아들이고 기는 수의 부모이니, 기가 흘러가면 수가 흘러가고 기가 막히면 수가 막히게 된다. 누군가가 소변은 순전히 여과되어 만들어지는 것이지 운화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 이치에 밝지 못했기 때문이다.<sup>90)</sup>

이와 같은 동원의 설명은 내경의 소변 생성 기전과 “膀胱者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라는 방광의 기능을 가장 잘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소변은 氣化의 문제만도 아니고 津液의 문제만도 아니므로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體用的 관점에서 방광이 충분한 진액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기화작용이 잘 일어나야 소변으로 배출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자신환이 위에서 설명한 소변의 생성 기전에 가장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모와 황백은 상화가 왕성하여 진액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며 육계는 명문의 기화작용을 도와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동의보감의 자신환 방해이다.

갈증이 없으면서 소변이 막힌 것을 치료한다. 황백과 지모(모두 술에 씻어서 햇볕에 쬐어 말린 것), 육계 반 돈. 이것들을 가루 내고 물로 반죽하여 오자대로 환을 만들어, 빈속에 끓인 물로 100알씩 먹는다. 이것을 일명 설신환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소변불통을 앓아서, 배가 불러 오르고 다리가 부으며 양 눈알이 튀어나오고 밤낮으로 잠을 못 자는 등 고통을 말로 할 수가 없었고, 또 구토와 딸꾹질이 심하였는데, 여러 의사들이 치료하여도 효과가 없었다. 동원이 말하기를, “방광은 진액의 창고로 기화가 되면 소변이 나간다. 응폐는 음이 없고 양이 기화되지 못해서 생긴 것이다. 이 사람은 너무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 열이 쌓였기 때문이다. 방광은 신의 府로서 오랫동안 말라서 소변이 기화되지 않은

것이다. 지금 關格의 병을 모두 갖추어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단지 하초만 치료하면 병이 저절로 낮게 된다.”라고 하고서는, 이 약을 처방하여 먹게 하니, 곧 소변이 샘솟듯이 나오고 나왔다.<sup>91)</sup>

동원은 소변의 문제를 기화의 문제만으로 본 것이 아니고 내경에서 말한 방광의 기능에 충실하여 진액과 기화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呑酸吐酸

『내경』에서 “諸嘔吐酸 皆屬於熱”이라고 하여 구역질이나 신물을 토하는 것은 모두 熱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동원은 辛熱한 약으로 치료한 경험을 들어 내경 병기에서 熱로 보고 치료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단계는 진액이 쌓여 鬱積이 된 것을 토해내지 못할 때 피부가 風寒을 받으면 속으로 몰린 것이 더욱 몰려 신맛이 명치끝을 자극한다고 하였다. 이때 辛熱한 약을 쓰면 잠시 풀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내경에서 熱이라고 한 것은 本을 말한 것이고 동원이 寒이라고 한 것은 末을 말한 것이라고 하여 동원을 비판하였다. 『의학정진』에서도 내경에서 熱이라고 하였는데 동원만 寒이라고 한 것은 동원이 일면만 본 것이라고 하였다.<sup>92)</sup>

구역질이나 신물을 토하는 것은 내경병기에서 말한 것처럼 열이 원인이다. 그러나 이 때 피부가 風寒의 사기를 받게 되면 안으로는 열이 더욱 몰리고 겉으로는 한이 싸고 있는 상황이 된다. 이때는 속의 열을 치는 것이 아니고 먼저 辛熱한 약으로 겉의 한사를 없애야 한다. 이런 경험을 들어 동원은 吐酸의 원인을 한이라고 했지만 근본 원인은 『내경』에서 말한 것처럼 열이라고 생각된다.

91) 상계서, p. 402.

92) 상계서, p. 1150.

90) 허준, 전계서, p. 399.

### III. 結 論

『황제내경』이 동원의 의학사상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동원은 스스로 '內經之旨, 皎如日星'이라고 하여 『내경』의 사상을 존중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그의 의학사상의 특징인 비위학설과 내외상의 변증은 『내경』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동원은 『脾胃論』에서 「五藏別論」, 「陰陽應象大論」, 「經脈別論」, 「平人氣象論」 등을 인용하여 사람은 胃氣가 근본임을 밝히고 있다. 또 元氣는 胃氣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하여 脾胃가 元氣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내경』에서 천지의 승강운동에 따라 사시의 生長收藏이 지속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精氣의 승강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은 비위라고 주장하였다.

동원은 전쟁이 계속되는 시대적 상황 하에서 외사가 침범하게 되는 근본원인을 내상에 의한 자체 방어력의 저하로 보고 외사를 제거하기보다는 부족한 원기를 보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런 이유로 동원은 내상과 외감의 구별을 중시하게 되는데 『소문·음양응상대론』의 “天之邪氣, 感則害人五藏 水穀之寒熱, 感則害人六腑”와 『소문·조경론』의 陰病, 陽病의 구분이 동원이 內外傷을 구분하는데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동원은 『소문·조경론』의 '陰虛生內熱'의 기전을 脾氣虛하여 발생한 內熱로 보고 甘溫除熱의 처방을 구사하여 보중익기탕을 창방하였다. 후대 의가들이 동원이 '溫'字를 따듯하게 한다는 의미로 보았다고 비판하였으나 이것은 일면만을 본 것이라고 생각된다.

동원은 用藥에 있어서도 天人相應의 관점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내경』의 원칙을 이어받았다. 四時의 寒熱溫涼에 따라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병의 경중이나 병의 부위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였다.

동원은 임상에서 補中, 升陽, 益胃하는 처방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처방명에서 언급한 升陽이란 용어는 中氣가 부족할 때 脾胃의 清氣를 끌어올

린다는 의미와 脾胃를 약간 내어 발산시킨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원이 병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비위를 중심으로 본 것은 사실이지만 경폐와 봉루의 원인을 삼초를 중심으로 파악한 것은 삼초 변증을 중시한 역수학파의 전통을 이어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삼초를 작용 중심으로 이해한 것은 『내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임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동원의 의학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원이 많은 영향을 받은 『내경』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參考文獻

1.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소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2.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영추,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3. 이고, 동원십종의서, 오주출판사, 대만, 1983
4.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5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동원비위론역석, 대성문화사, 1999
5.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8기 졸업준비위원회 역, 국역 내외상변혹론 난실비장, 대성문화사, 1995
6. 허준,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1999
7. 홍원식·윤창열 편저, 중국의학사, 일증사, 2001
8. 맹웅재 외 옮김, 각가학설, 대성의학사, 2001
9. 왕홍도, 황제내경연구대성, 북경출판사, 1999
10. 이충보 외 편, 금원사대의가학술사상연구, 성보사, 1985
11. 지규용, 새로운 한의학 터뉘기(II), 일증사, 2004
12. 정창현, 황제내경의 사유체계와 그 특징, 제10회 대한한의학원전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04
13. 최삼섭·홍원식, 이동원의 생애와 의학사상, 경희한대의대 논문집, Vol.4, 1981
14. 송철호, 금원사대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 1986



15. 배오성, 금원사대가의 학설이 사상체질의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Vol.6
16. 정면·홍원식, 금원사대가 의학이 조선조의학에 미친 영향, 대한원전의사학회지, Vol.9
17. 양광렬, 주단계의 양유여음부족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 2001
18. 정호진, 비위와 명문을 중심으로 한 승강의 원동력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 2001
19. 진주표, 이동원 내외상변의 의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 2002